

시총 4조 달러 터치… 엔비디아,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것

엔비디아, 초거대 AI 최대 수혜주
1년여 만에 3조 달러→4조 달러로
1분기 매출 69% 늘어 440.6억 달러
전문가 “2028년 시총 6억 달러 도달”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2조원)를 ‘터치’했다. 9일(이하 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장 중 한때 주당 164.42달러까지 오르며 시총도 4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13개 이상 합친 것과 맞먹는다. 이날 증가는 163달러(시총 3조9720억달러)로 마쳤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한다.

◆AI열풍 타고 시총 4조달러

현재 전 세계에서 시총이 3조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MS, 엔비디아 단 3곳뿐이다. 그중 세 번째로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엔비디아는 2022년 말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 2023년 6월 종가 기준 시총 1



ChatGPT로 생성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 시작이었다. 2024년 2월 2조 달러, 그해 6월 3조달러를 넘어섰고 이제 다시 1년여 만에 첫 4조 달러에 진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달러를 넘어선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가치는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에 포함된 가장

작은 216개 기업의 시총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웨드부시 증권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와 기술 산업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며 AI 혁명이 다음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면서 “AI를 움직이는 칩은 바로 엔비디아”라고 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치솟은 것은 AI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전 산업 영역으로 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AI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로 꼽힌다. 앞서 미 정부가 4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반도체 ‘H20’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업황이 좋다.

엔비디아는 5월 28일 올해 1분기(2~4월)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440억6000만 달러(약 59조8000억 원)라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33억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였다. 올해 들어 MS와 메타, 아마존,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잇달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최근 펠쳐진 신고가 랠리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6월 25일 주총회에서 “엔비디아에는 여러 성장 기회가 있다. 그중 AI와 로보틱스가 가장 크고,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황 CEO는 “자율주행차가 첫 상업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AI 칩에 이어 로보틱스 시장에서도 강자로 자리 잡으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팔까, 더 살까”, 서학개미의 행복한 고민

직장인 이모(38)씨는 엔비디아 주가가 치솟자, 고민이 생겼다. 차익을 실현해야 할지, 추가 매수에 나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엔비디아 주식에 5000만원쯤 투자해 30%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AI, 로봇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샀는데 올해 수익률이 10%를 넘는다. 이씨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AI, 로봇 분야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미국 주식 투자가 필수인데 엔비

디아 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 부담스럽다”면서 “주변에서 하나둘 차익 실현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유명 투자사 루프캐피탈은 목표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난다바루아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생성형 AI의 다음 ‘황금물결’에 진입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강한 수요 증가의 최전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엔비디아는 여전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가격 결정력과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댄 데이비드워츠 폴렌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정보책임자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매우 낙관적인 가정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수요 전망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실적+정책 수혜 기대감… 증권株 ‘승승장구’

KRX 증권지수 이번주 15% 급상승
성장·주주환원에 상승밸리 장기화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증권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4% 상승한 1517.05를 기록했다. 이번 주 들어서만 14.62% 급등했다. KRX 증권지수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 주요 증권사 11곳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부국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신영증권도 17.18%, 대신증권은 11.03% 오르면서 10%대 강세를 보였다. 세 곳 모두 자사주 비율이 ▲부국증권 42.73% ▲신영증권 51.28% ▲대신증권 25.1% 등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칙적

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증시 활성화 위한 정책 기대감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며 사흘 연속 랠리를 펼쳤고, 코스피는 3100선에 안착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증권, 보험, 지주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과 종목들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업종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증시 부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권업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20일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이달 들어서는 31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이후 3년 9개월만으로,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만 연고점을 세 번 경신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권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에 도달했으며,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유동성 장세에서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수익 증가와 상법개정안 등 주주환원 강화 법안 시행 시 여력을 보유한 대형사들의 추가 주주가치제고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성장과 주주환원이 동시에 진행됨에 힘입어 상승밸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 증시의 열기가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국내 빅5 증권사(자기자본 기준 상위 5개사)의 올해 커버리지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난 6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코스콤 임직원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코스콤, 현충원 묘역 정화 사회공헌 실시

임직원 30여명 참여 잡초제거 등 작업

코스콤은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6월 25일에 진행된 묘역 정화 사회공헌활동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다. 코스콤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묘비 닦기, 잡초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등 묘역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묵념 시간과 역사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은 매년 6월, 코스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코스콤은 매년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관내 유관 기업 직원들과 함께 현충원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외국인, 지난달 주식·채권 6.7조 ‘순매수’

금감원, 외국인 주식 보유액 863.4조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6월 국내 상장 증권을 총 6조70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에서 3조760억원, 상장채권에서 3조6240억원을 각각 순투자하며 ‘바이 코리아’ 흐름을 이어갔다. 주식은 두 달 연속, 채권은 다섯 달 연속 순매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122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460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2조 917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매수 흐름이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863조4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4%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11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주에서 3조5000억원, 유럽에서 1조4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1조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조4000억원으로 순매수 규모 1위였고, 아일랜드

(1조7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순매도국은 노르웨이(1조2000억원), 싱가포르(1조 1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미국(347조9000억원)이 전체의 40.3%로 가장 컸으며, 이어 유럽(268조 4000억원), 아시아(123조8000억원), 중동(12조9000억원) 순이었다. 채권 투자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다. 6월 외국인은 상장채권을 17조7150억원 순매수하고, 14조91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순투자 규모는 3조62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304조 4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체 상장잔액의 11.3%다. /허정윤 기자

한꿈학교에 ‘스마트 도서관’ 설치 지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새로 이전하는 한꿈학교의 신고사에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 설치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한국증권금융’이 출연해 2013년 11월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이

사는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꿈학교에서 개최된 ‘한꿈학교 신고사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개소식에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 이재강 경기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한꿈학교 교사(校舍)의 지상이전을 축하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한꿈학교의 신고사에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 설치와 ICT 기자재·미디어 시스템 및 북카페 조성 등을 후원했다.

/신하은 기자